

# 2000년을 향한 한국낙농산업의 과제

성균관대학교 농대  
교수 이 재 영

## 1. 세계의 낙농산업과 우리의 현실

1987년도 전세계의 우유생산량은 약419,681천톤으로 추계되며 이것은 전년도에 423,207천톤에 비하여 -0.8%의 감소를 의미한다.

즉 1987년은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던 우유생산량이 감소추세로 접어드는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되며 또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것이 세계 낙농인의 현실감각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EEC국가들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낙농선진국에서 우유의 생산이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수요의 감소에 기반을 두고있는데 반해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난 국가로 브라질 인도 남아연방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곳이 남미제국의 +10.2% 라는 점을 주시하면서 20% 이상이나 늘어난 한국낙농의 모양이 궁금해지지는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벌어질 쇼의 장면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갑작쇼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사실 1년에 우유의 생산이 20% 이상 늘어나는 이와같은 폭발적 성장은 세계기록에 속하며 어느나라도 체험해 본일이 없는 다시 말해서 교훈을 얻을만한 선배가 없는 외로운 전쟁과도 같다. 거기다가 세계각국의 낙농이 포화상태에서 감산추세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돌파구로 해외에서 찾는일 조차도 불가능한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 2. 그린 벨트를 낙농단지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우유생산이 100만톤을 돌파하

1987년도 세계우유생산량추계 (1,000톤)

Nbrth America	1978/82	1985	1986	1987	87:86
- Canada	76,277	79,977	81,650	80,920	- 0.9
- USA	7,825	7,891	7,850	7,850	0
	58,211	65,166	65,800	64,230	- 2.4
South America					
- Brazil	18,704	19,546	19,403	20,433	+ 5.3
	10,293	10,400	9,800	10,800	+10.2
EEC					
- France	110,642	114,613	115,416	110,280	- 4.4
- W. Germany	26,682	26,830	27,100	25,690	- 5.2
- Holland	24,460	25,674	26,200	25,120	- 4.1
- UK	11,919	12,550	12,800	12,030	- 6.0
- Belg/Lux.	16,070	16,340	16,350	15,700	- 4.0
- Denmark	4,043	4,080	4,160	3,940	- 5.3
- Greece	5,184	5,099	5,085	4,860	- 4.4
- Ireland	700	646	642	620	- 3.4
- Italy	4,909	6,047	5,687	5,530	- 2.8
- Portugal	10,222	10,227	10,050	9,650	- 4.0
- Spain	669	820	842	840	- 0.2
The rest of	5,784	6,300	6,500	6,300	- 3.1
W. Europe	15,648	16,356	16,062	15,893	- 1.1
- Finland	3,216	3,083	3,044	2,988	- 1.8
- Norway	1,925	1,973	1,944	1,924	- 1.0
- Sweden	3,461	3,695	3,530	3,507	- 0.7
- Switzerland	3,627	3,845	3,780	3,700	- 2.1
- Austria	3,419	3,760	3,764	3,774	+ 0.3
Eastern Europe	41,047	43,489	42,649	42,150	- 1.2
- Czechoslovakia	5,812	6,883	6,885	6,900	+ 0.2
- GDR	8,125	9,044	9,050	9,075	+ 0.2
- Hungary	2,552	2,723	2,725		
- Poland	16,213	16,585	15,704	15,075	- 4.0
- Rumania	3,976	3,575	3,675	3,750	+ 2.0
- Yugoslavia	4,369	4,679	4,610	4,625	+ 0.3
Soviet	91,767	98,608	101,000	102,000	+ 1.0
South Africa	2,280	2,327	2,200	2,275	+ 3.4
India	13,000	19,000	20,100	21,200	+ 5.5
China	1,201	2,499	2,800	3,000	+ 7.1
Japan	6,493	7,378	7,525	7,375	- 2.0
Australia	5,558	6,265	6,200	6,200	0
New Zealand	6,568	7,876	8,202	7,955	- 3.0
Total	389,185	417,934	423,207	419,681	- 0.8

므로서 세계 낙농지도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 산업을 100년 대계를 세워 후손에 잘 물려주어야 하는데 생산기반에서 해야할일은 이산업의 특성이 도시근교농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단지화 하므로서 생산원가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갖게 할수 있으며 그래야 비로서 수입압력에도 견디게 할수있게 된다. 다행히 우리는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논란속에서도 잘 보존되어오고 있다. 나는 이 그린벨트를 낙농단지로 대담하게 개발할 것을 제창하는 바이다. 단지화하므로서 협동구매 협동판매등 경영상 결합(Integration)이 가능해지며 조사료중심의 본연의 낙농업이 가능해지므로서 유제품의 생산원가를 국제시세로 접근시켜 나가게 된다. 낮은 유제품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우유소비확대를 펴나가야 비로서 우유시장의 확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 3. 우유의 가장 큰 킬러는 치즈이다

최근 특소세를 폐지하고나서 아이스크림의 질이 좋아지고 원가의 절하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음은 막혔던 물고를 튼것과 같은 시원한 소식이 되고 있다. 물론 액상유의 소비확대가 우유소비의 주축으로 계속 밀고나가 주어야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공인된 우유의 대량킬러는 치즈라는 점을 의식화할 필요가 있다. 치즈는 원유를 10:1로 죽이는 대량킬러 이므로 이 품목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유제품의 중심권에 밀어넣는 혼신의 노력이 업계를 중심으로 운동화돼야한다. 이 운동은 “마시는 우유에서 먹는 유제품시대로”라는 슬로건밑에 약10년간 꾸준히 벌려나가야 할것으로 본다. 세계에는 그조직이나 풍미에 따라 참으로 다양한 치즈가 있어서 관광객을 끄는 매력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88년에 “치이스 올림픽”을 열고 세계각국의 스포츠와 민속 그리고 치즈를 맷치시켜서 봄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기회는 한국낙농에 주어진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사실 다른 유제품은 거의 세계적으로 공통화되어 특징이 없으며 88올림픽 공식우유도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이므로 이런 목적에 알맞는 품목이 각국의 다양한 치즈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 4. 알콜발효유의 개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주류소비국가로 되어 있다. 이걸 단시일에 고쳐나갈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런 식성을 이용해 나가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 발효유에는 유산발효유와 알콜발효유가 있는데 후자의 개발을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운 겨울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우유의 비수기를 넘기는데 알콜발효유의 소비가 바람직스럽다. 소화기 기능에 지장을 주지않으면서 술의 기능을 살려주고 우유의 소비를 다양화 하는데 더 없는 좋은 품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5. 인삼우유

새로운 한국적 유제품으로 필자의 오랜 관심을 끌여온것이 인삼우유(아이스크림, 요구르트 포함)이다. 지난 1년간 실험을 해본결과 우리 기호에 맞는 좋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제품화 하려면 허가과정에서 100萬불의 해외수출 실적이 있어야 비로서 내수허가가 나도록 인삼법이 되어 있어 산업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삼을 수출품목으로 권장하려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 이와같은 쓸데없는 규정으로 장벽을 만들어 놓고 있음은 우유와 인삼의 두생산업자에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것이 분명하며 하루속히 철폐되어 한국적 유제품으로서 인삼과 우유가 잘 결합되어 소비자에게 널리 선보이게 될 날이 닥아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맺는말

한국의 국토중 70%정도가 임야로 되어있음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의도하는 농업이 낙농업임을 엿볼수 있게 한다.

수십년 외쳐오던 산림녹화가 가져온 결과로 녹화는 이루어졌으나 모두 쓸데없는 잡목으로 산을 덮는 임시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임야가 헐벗었던 시절보다 보기좋고 기름져 보이지만 하지만 너무도 실속없는 낭비이며 우리에게 그넓은 면적을 저렇게 경제성없는 잡목으로 덮어둘수 없다는 인식이 이제서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음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초식가축을 기르는데 더없이 귀중한 자원이 될 산지를 낙농단지로 활용하여 우유와 쇠고기가 생산되는날 축산업 중에서도 낙농업은 가장 국제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본과도를 달리게 될것이며 우리농촌은 비로서 구조개선이 되고 산업간 격차가 살아지는 현대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을 굳게 믿어 본다.

